

## '사찰환경 보존지역' 지정 촉구

조계종, 정부에... 산사 오폐수 시설비 국가분담도

### 2기 사찰환경위 발족

사찰의 수행과 문화환경 지킴이를 자부하는 조계종 제2기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31일 발족과 함께 '사찰환경보존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같은 방안은 지자체가 실시되며 세수수입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질과 문화, 자연환경 파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오폐수시설을 자체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공시설인 사찰의 오폐수시설 설치비의 국가분담도 촉구키로 했다. 사찰환경보존위는 또 산사의 오폐수를 줄이기 위해 배수공원을 대중사찰에서 생활화하고 산사에 딸린 경작지의 주말농장과 방안을 각 사찰에 제안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단위로 보존위원회를 설립해 친환경적인 불사를 유도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망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신북군 문화관광부장관, 김대중 대통령, 고산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

사찰지역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것은 물론 역사적인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종교적인 수행환경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군사보호구역이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존구역처럼 '사찰환경보존지역' 지정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요구를 정부에 제기하고 시·도의 조례제정 등 법제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과학에서 개인법회를 갖는 제2기 사찰환경보존위원회는 또 국·도립공원 입장표에 오폐수비를 책정토록 요구하고 1억원 가량 소요되는

이밖에도 산사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 모델제시 및 적합한 업체선정, 사찰환경문제 조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사찰환경보존위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수립 및 자문 ▲국립공원 보존위 설립지원 ▲지역순회강연 및 조사활동 ▲분쟁사찰지원 ▲정액자료 및 교육자료 발간 ▲사찰환경순회와 개최 ▲사찰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백서발간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화쟁정신으로 지역감정 풀자"

김대통령-불교계 인사 104명 청와대 오찬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인국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총무원장,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등 불교계 대표 104명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종교연합 시장 회복사업 개발방지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인 지역대립 구도를 불교계가 특유의 화쟁정신으로 풀어달라"며 "남북통일의 기반을 범종교적으로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문화유산의 선양과 관광진흥에도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기사 2면)

고산스님은 경제난을 극복해 준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하고 앞으로 정치안정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총담협의회 소속 종단 총무원장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을 비롯한 교계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고산스님, 교황청 초청 수락

교황청대사 총무원예방 '교황 방한'도 논의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4일 주한 로마교황청 대사 조반니 모란디니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10월 24~29일 로마에서 열릴 세계종교지도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고산 총무원장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기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며 "종교지도자회의 참석해 교황의 한국방문 의사를 들어보겠다"며 초청할 뜻을 밝혔다.

모란디니 대사는 "이번 대회의 목적은 더 나은 세계를 이루기 위해 종교인들이 모든 면에서 협조하는 것이 목적"이라

며 "교황님도 원장님이 초청하면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종교지도자회의는 87년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기도모임에서 비롯됐으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스님이 참석했다. 종교인 기도모임은 매년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기도모임과는 달리 인류평화를 위한 실천지침을 담은 종교지도자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 조계종 새 종정 4월2일 추대

3면

### 구산선문 참선 기행

4월:가치산문(보림사)-운주사·쌍봉사

본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선맥을 따라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떠납니다.

구산선문(九山禪門)은 나말여초 당나라 유학승들에 의해 전래된 선종(禪宗)을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나라 선문의 아홉 도량을 의미합니다. 그 현장에서 선문의 역사와 사상을 배우고 참선을 체험하는 이번 기행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관련기사 14면)

가치산문의 중심 도량인 보림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사천왕과 석등(국보 제44호), 머리와 몸집에 비해 손이 작은 철제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 등 고찰의 연륜을 잘 드러내는 문화재가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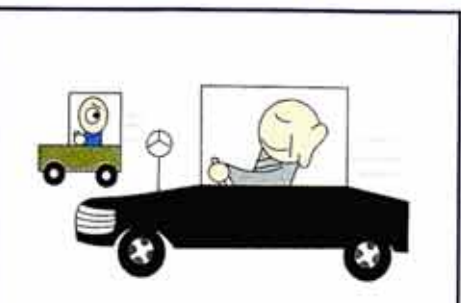
외박로 유명한 인근의 운주사에서는 파격적인 탐과 불상들로 인해 색다른 체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쌍봉사에서는 대웅전의 고종스런 모습과 우리나라 부도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고 있는 철강선사부도탑(국보 제57호)의 정교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출발: 4월24일(토) 밤10시·조계사 앞  
○인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원)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 2기 명예기지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우리 생활과 밀착된 살아있는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심신을 북돋우기 위해 명예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왕성한 활약을 보여준 1기 명예기자에 이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실 2기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자격: 주부, 직장 및 불교단체 종사자(지역 무관)  
○인원: 00명  
○활동내용: 취재 및 제보  
○대우: 채택된 기사 원고료 지급  
○접수마감: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처: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스님들 고급승용차 이용

22일 오후 2시 서울경전동 조계사 주지장, 정확히 75대가 주차해 있는 승용차의 차종을 조사해 본 결과 그랜저 다이내스티 엔터프라이즈 등 시가 2천만원쯤 되는 고급 대형승용차는 9대, SM5 포텐샤 프렌스 소나타 등 고급 중형차는 47대, 마티즈 등 소형차는 단 2대였다.

지난해 말 전국불교연맹연합이 실시해 모 일간지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사용차량 대부분이 그랜저 다이내스티 엔터프라이즈 포텐샤 등 최고급 승용차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뜰스나 조계종 사태로 어두웠던 당시 불자들의 마음을 더욱 암울하게 했다.

종단이나 사찰의 요직을 맡고 있는 스님치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스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직위가 올라갈수록 차도 고급화된다. 심지어는 외제차를 거리낌 없이 타고 다니는 스님도 있다.

조교일선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려면 요즘 세상에 승용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안정성이 나 피로도를 고려하면 소형차는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다. 또 산세가 험한 곳에 위치한 사찰의 스님들이 주로 지프형 차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차를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품이나 자신을 빛내는 과시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승가에까지 스며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출가자는 검소하고 청정해야 한다. 고무신에 가운 옷을 입는 이유가 신이 없고 옷이 없어서인가, 작은 승용차를 이용해도 포교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승용차도 다 정자로 마련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유없이 큰 차, 고급차를 선호하는 것은 심보정체를 바꾸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는 매일 교계뉴스 속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부다피아에 접속해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일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는 매일 교계뉴스 속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부다피아에 접속해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마케팅프론티어대상 수상  
('99 한국마케팅학회 선정 고객성공부문)

## 21세기 경영

### 더욱 투명해집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 포항제철